

안전활동 수준 'A등급'

국민연금, 공공기관 평가 2년 연속... 경영자 보건활동 참여 등서 최고점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공공기관의 근원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자율안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2019년 도입했다. 안전보건경영체계, 안전보건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해 공공기관의 유형·특성별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공단은 ▲경영자의 안전보건 활동

참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 확대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 ▲안전사고 ZERO 등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개 기관 중 최고점수로 A등급을 받았다.

안전경영 공모를 통해 28건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매일 안전점검의 날에 109개 전 지사가 참여해 총 1152회 안전점검과 1180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도 앞장서 왔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터미널, KTX 역사 등에서 홍보용 리플

렛과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휴양시설인 청풍리조트를 코로나19 임시 생활시설로 재공하는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펼쳐왔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공단은 함께 지키는 안전, 함께 누릴 100세 연금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경영방침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기관의 근로자뿐 아니라 공단을 방문하는 국민의 안전까지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공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26일 지역본부에서 계열사 간 소통 강화와 시너지 제고를 위해 '전북농협 시너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너지 제고 통한 '100년 농협' 구현

전북농협 시너지협의회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26일 지역본부에서 계열사 간 소통 강화와 시너지 제고를 위해 '전북농협 시너지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북농협 시너지협의회는 농협중앙회와 경제자유, 은행, 보험, 농협유통 등 범 농협 소속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앙회를 중심으로 시너지 제고를 통한 전북 농업·농촌·농협 발전을 도모하고자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인과 도시민에게 신뢰받는 농협,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등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한 방안 간 시너지 활성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재호 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너지 협의회를 주축으로 범인 간 소통을 확대하고 시너지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추진해 농업인 실익증진과 지역사회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올해

신규직원 16명 공개 채용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규직원 16명을 채용한다.

채용분야는 경력직 정보화 1명, 안전·환경·보건 1명 등 총 2명, 신입직 행정 3명, 토목 2명, 도시 3명 등 총 8명, 그리고 체험형 인턴 6명 등이다.

채용일정은 지원서 접수 4월 26일~5월 11일, 필기시험 5월 22일, 면접시험 5월 29일~6월 5일까지 진행된다.

공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재 선발을 위해 고도화된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서류·필기·면접에서 지원자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sdmc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금융전문가 양성을 위해 26일자로 6급 신규직원 13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인재 13명 신규 채용

NH농협은행 전북본부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금융전문가 양성을 위해 26일자로 6급 신규직원 13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3명의 신규직원들은 26일 임용장 교부식을 마치고 3주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5월 17일부터 전북 관내 각 영업점에 배치되어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날 장기요 본부장은 새내기 신규직원들을 위해 선물과 꽃다발을 전해 주며 농협은행의 새 가족이 된 것을 축하했다. 장 본부장은 신규직원들에

게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일할 것,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항상 공부하고 노력할 것, 꿈을 가지고 도전할 것" 등을 주문하며,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한 최고의 댕커가 돼 전북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매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전북지역 출신 지원자 우대 채용을 실시해오고 있다. 2012년 은행과 중앙회의 사업분리 이후 총 288명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윤상기자

축산농장 종합지원시스템 '축사로'에

퇴비관리 기능 추가

처리방법 등 기록·관리 가능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축산농장 종합지원 시스템 '톡톡(Talk-Talk)' 한 농장 축사로(이하 축사로)에 퇴비(거름)관리 기능을 추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축사로는 가족 사육부터 출하 후 관리까지 농장의 기록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이다. 주로 한우·육우, 젓소, 돼지, 닭 등 축종에 대한 해썬(HACCP) 기록관리, 개체관리, 번식관리, 경영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퇴비 부숙도(썩은 정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효율적인 퇴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능을 추가했다.

축사로의 퇴비관리 기능을 이용하면 축산농가에서 가족 분뇨 처리방법, 처

리량, 처리일자 등을 기록·관리할 수 있다. 축산농가는 이를 통해 가족 분뇨를 주기적으로 처리하고, 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농진청은 축산농가에서 개선된 축사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안내서(매뉴얼)를 개정 발간하고, 신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축사로 사용자 안내서(매뉴얼)' 한우편은 지난 2월에 발간해 관련기관에 보급하고 있으며, 젓소편은 5월 초에 발간될 예정이다. 축사로 신규 사용자 교육은 오는 5월부터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영규 기술지원과장은 "사용자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축사로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간편화,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무주국립관리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활용 방제작업

무주국립관리소(소장 정상용)는 참나무들벥병 확산·저지 및 산림환경개선을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활용해 적기 방제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나무들벥병은 '공통나무좀'이라는 벌레가 공명아이를 몸에 지닌 채로 참나무에 침입하여 병을 감염시키며, 피해를 받은 나무는 줄기의 수분, 양분 이동통로가 막히면서 잎이 시들고 마르면서 7월 하순부터 빨갛게 말라 죽게 되어 산림경관을 해치는 병해충이다.

특히 참나무들벥병에 감염된 나무는 표고자목 등에 활용될 수 없어 확산 될 경우 표고 및 천마재배 등 산림소득사업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매개충의 생활사를 고려하여 본격적으로 우화되는 4월 중순~5월 중순까지 끈끈이로봇을 설치함으로써 맞춤형 방제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LX, 사옥 입점 중기·소상공 임대료 인하 등 협력이익 공유 '인정'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경렬, LX)가 공공기관의 핵심가치인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노력을 인정받았다.

LX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0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준정부형 내 최고등급인 '최우수'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총 1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올해 처음 평가에 참여하는 77개 기관을 제외한 58개 기관(공기업 28개, 준정부형 26개, 기타형 4개)에 대해서만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LX는 LX공간드림센터를 활용한 창업지원과 LX해외진출센터를 통해 민간기업과의 해외 동반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협력펀드 20억 운영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LX는 코로나19 고봉 분담을 위해 사옥에 입점한 중소기업, 소



LX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0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준정부형 내 최고등급인 '최우수'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LX 본사 전경.

상공인 임대료 인하와 영업 활성화 컨설팅 지원 등으로 협력이익 공유를 인정받았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분야에서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2007년 이후 매년 실시된다.

LX 사회가치실현처 김희범 처장은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은 공공기관의 핵심가치"라며 "도전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가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숲 조성

서부지방산림청-트리플래닛 협약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26일 (주)트리플래닛(대표 김형수)과 국민참여 탄소중립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50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자 국민의 안전과 보건 및 휴양기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지리산권역, 도서지역 등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국유림의 식생 복원과 복구 등 국민 참여 숲 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첫 번째 협력사업은 올해 국가 숲길로 지정되는 지리산둘레길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이곳에 지역특색 수종을 비롯한 야생화 등을 심는 탄소중립 국민 참여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트리플래닛 측은 오는 5월부터 반려나무 입양 캠페인인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여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2010년 법인 설립 이후 전 세계 13개국 314개 숲에 약 97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오고 있는 사회혁신기업이다.

조준규 서부지방장은 "앞으로 트리플래닛과 함께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26일, (주)트리플래닛(대표 김형수)과 국민참여 탄소중립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모빌리티 라이프 최적화 카드 런칭

현대자동차(주)가 26일 현대카드와 함께 더욱 강력해진 혜택을 담은 'Hyundai Mobility 카드'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Hyundai Mobility 카드는 신차 구매 고객에게 필요한 혜택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라이프에 특화된 것이 특징이며, 블루멤버스 포인트가 적립되는 현대자동차 전용카드이다.

현대차는 모빌리티 라이프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유, 정비, 세차 등 차량 유지 관리와 대중교통, 카셰어링 등 모빌리티 관련 업종 이용 시 추가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며, 기본형(Basic)과 플래티넘(Platinum) 두 가지 카드 등급으로 운영한다.

Hyundai Mobility Basic 카드는 현대차 신차 구매 시 1.5% 특별 적립 혜택이 주어지며 월 50만원 이상 이용 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1%를 한도 제한 없이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업종에 따라 1~2% 추가 적립되어 차량 유지관리 업종은 최대

3%(월 이용금액 30만원 한도), 모빌리티 업종은 최대 2%(월 이용금액 30만원 한도) 적립된다.

Hyundai Mobility Platinum 카드는 현대차 신차 구매 시 2%의 특별 적립 혜택이 주어지며, 월 200만원 이상 이용 시에는 기본 적립 및 자동차 유지 관리, 모빌리티 영역에서 기본형 카드의 1.5배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친환경 모빌리티 라이프에 최적화된 Hyundai EV 카드도 새롭게 출시했다. Hyundai EV 카드는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 시 리워드 혜택을 극대화해 월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00%(월 2만원 한도)를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으며, 현대차 신차 구매 시 1.5% 특별 적립 혜택도 적용된다.

카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홈페이지(<http://www.hyundaiocard.com>)와 현대차 홈페이지(<http://www.hyundai.com>)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